

# 전남 어선 91% “작고 낚아”...해난사고 잦다

2만8998척 5t 미만...38%는16년 이상 노후화

지난해 화재·해난사고 97건으로 해마다 급증

전남 선적의 대부분이 소형에다 노후해 각종 해난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선적 총 3만1824척 가운데 91%인 2만8998척이 5t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t 미만의 소형어선은 1만831척으로 34%에 달했다. 선령(船齡)은 16년 이상이 1만2156척으로 38.2%를 차지하는 등 10년 이상 노후화 어선은 1만7000척에 달했다.

작 가운데 4척이 노후어선이다. 5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선령이 낮은 어선은 5454척으로 17.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과 각종 해난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47건이었던 해난사고는 2009년 68건, 2010년 57건, 2011년 8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는 9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평균 해난사고는 70척

에 달했다. 지난해 해난사고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 44%인 43건, 운항 과실 29건, 기상 악화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늘어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전 항포구에서 출항 전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

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형어선 안전 운항을 위해 구명동의 확보, 어선 위치 자동발신장치(AIS), 초단파발신기(VHF) 등의 안전장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 선적 어선수는 3만1824척으로 전국 어선수 7만6975척의 41.3%에 달한다. /정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 “농가 보리밭기 걱정마세요”

전남농기원 ‘다통식 답압기’ 개발  
1ha 보리밭 30분 정도면 밟기 끝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봄철 보리재배에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인 보리밭기를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다통식 답압기(多桶式 踏壓機)’(사진)를 개발했다. 전남농기원 쌀 싹연구소가 개발한 답압기는 롤러가 여러개인 다통식이다. 직경 30cm, 길이 40cm의 원형 롤러를 앞쪽 3개, 뒤쪽 2개를 배치, 트랙터에 달아 끌고 가는 구조다. 트랙터가 한번 지나갈 때 전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폭이 190cm에 달한다. 밟이랑 폭에 맞춰 롤러를 더 달아 작업 범위를 키울 수도 있다. 일부 농가에서 트랙터에 롤러를 달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롤러가 한 개인 일체형이다. 이는 울퉁불퉁한 밭에서 제대로 눌러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롤러를 여러 개 다통식은 이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했으며 단 시간에 많은 면적을 밟아 줄 수 있다. 보통 2월 중순에 시작하는 보리밭기는 겨울 동안 땅이 부풀어진 보리밭을 밟아주는 작업이다. 서릿발 등으로 뿌리가 들떠 입을 수 있는 저온·건조 피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영농 단계다. 보리가 일찍 새끼치기하는 시기를 억제하면서도 새끼치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 계속된 비로 가을 보리 파종이 늦어지고 파종 후 저온으로 생육까지 부진한 상태여서 보리밭기의 중요성이 여느 해보다 크다. 전남도농기원 싹연구소 신혜룡 소장은 “다통식 답압기 제조 방법을 농가에 제공,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1ha의 보리밭도 30분이면 거뜬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 “주민 고충민원 들어줍니다”

권익위, 내일부터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연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듣는 제도로, 권익위는 19일 여수시청, 20일 순천시청, 21일 광양시청, 22일 구례군청에서 각각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 곡성이나 화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나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일 순천 이동신문고 직 후에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직접 전북 남원 지역을 방문, 88고속도로 신설 공사에 따라 단절된 남원 교통산성 능선구간에 연결 통로를 설치해 생태환경을 복원하도록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듣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31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해 처리했고 그 중 332건은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내기 공무원 조직문화 배우기 전남도와 전남지역 시·군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일반직들이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미노 퍼레이드 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은 9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입교식을 갖고 3주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전남도 제공>

곡성군·상주시 등 영호남 4개 지자체 기술센터

## 농가 소득 향상 ‘농정협의회’ 개최

곡성군과 자매결연 시군인 담양군, 경북 상주시, 경남 거창군 등 영호남 4개 지자체 기술센터가 모여 농업발전의 공감대 형성과 소득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농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한 마당에서 영호남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 농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력 강화 및 농업정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각 지역의 농정 주요 성과와 역점시책을 설명한 후 이해 증진을 위한 농업현장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농정시책 소개와 상호 현장 견학을 통한 고소득 농업인 육성,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농·특산물 홍보, 과학농업의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에 합의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동백나무, 농가 소득원 급부상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5년간 신제품 육성 산업화 추진  
잎·꽃·열매 이용 식품·의약품 원료 개발·생산 박차

말라세지아균은 사람과 애완동물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는 안도와 진도 등 전남지역 9425ha에서 자라고 있다. 전국 면적의 67%를 차지한다. 전남은 많은 양의 동백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열매만 일부 식용오일과 화장품 등으로 쓰는 등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내 제약과 화장품, 식품업체 60% 이상이 원천소재인 천연 생물의원을 국외에서 들여오는 상황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는 2010년 기준 6조1604억원이며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경수나 정원수로만 주로 이용되던 동백나무가 산업용 원료로 탈바꿈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남해안에 산재해 있는 동백나무를 식품과 의약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지난해 동백 어린잎 등에서 ‘말라세지아균(Malassezia pachydermatis)’에 대한 항균성 성분을 추출하고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동백나무 대량 생산과 증식기술 보급 등 임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남해안에 산재해 있는 동백나무를 식품과 의약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지난해 동백 어린잎 등에서 ‘말라세지아균(Malassezia pachydermatis)’에 대한 항균성 성분을 추출하고 개발하는

## 고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군, 64억 들여 시설을 재건축·편의시설 확보

고흥군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흥흥군은 최근 ‘고흥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실시계획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기본계획은 흥흥시장에 모두 64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재건축하고 고객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확보한다. 또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되도록 전통시장의 옛 정취를 살리도록 하는 등 흥흥시장이 지역중심 상권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정서와 문화를 살려 흥흥시장이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흥흥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사에 착수, 내년 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궁합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핀 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